

# "AI 수요 탄탄한 韓반도체 … 공급부족에 호황 이어질 것"

입력 2026.02.04. 오후 5:53 수정 2026.02.04. 오후 7:27

이세철 씨티證 리서치센터장

美반도체 주가 크게 오르자

삼전닉스 상대적 저평가 부각



최근 외국계 증권사 중 SK하이닉스에 대해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이세철 한국지점 리서치센터장(전무)이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반도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

스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인공지능(AI) 답변 정확도를 높여주는 KV캐시가 D램을 넘어 낸드 플래시까지 메모리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KV캐시는 확장되는 AI 추론 시장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이 센터장은 "KV캐시뿐만 아니라 소캠2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과 eSSD까지 모든 제품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신규 팝이 완공돼도 장비가 들어가고 웨이퍼가 투입돼 공급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은 2028년부터"라며 지금의 높은 메모리 가격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가 고가로 유지되면서 소비자용 정보기술(IT)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IT 제품은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신제품이 예전 상품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 제조사들이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으로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을 거쳐 2017년 씨티에 합류했다. 2024년에는 한국지점 리서치센터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말 발간한 SK하이닉스 보고서에서 기존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분석할 때 사용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아닌 EV/EBITDA(기업가치/상각전영업이익) 방식을 활용했다. 그는 "파운드리 중심인 TSMC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서 적정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소개했다. 씨티가 제시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는 140만원이었다.

[이덕주 기자]

이덕주 기자(mrdjlee@mk.co.kr)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